**롬0927 Note**

**◆Cross check : 사1022**

사1022. 이는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들 중의 남겨둔 자[쉐아르:솨아르(여분이 있다,남다,남기다,비축하다,나머지,남은 것)에서 유래,나머지,다른,남은 자,여분]가 돌아옴이라, 포고된(하라쯔:날카롭게 만들다,상처를 입히다,깨어 있다,결정하다,분발하다,작성하다,정하다,불구로 만들다,동작하다) 삼켜버림[킬라욘:칼라(멸하다,소비하다,성취하다,써버리다,완전히 파괴하다,만료되다,기진하다,떠나다,일소하다,소멸하다)에서 유래,갈망하는,파괴,소멸,쇠하는]이 법적 깨끗함[체다카,쩨다카: 짜다크(도덕적이나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,올바르게 만들다,깨끗케 하다,정결하다,의롭다,의롭게 하다,의로운 상태가 되다)에서 유래, 의로움,정직,공의,덕,번영,알맞게,의로운]과 함께 범람하느니라.